

## 분만 산모의 상급병실 선택 요인과 실제 병상 사용 현황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sup>1</sup>, 국민 건강 보험공단 일산병원 산부인과학교실<sup>2</sup>  
윤정원<sup>1</sup> · 한상원<sup>2</sup> · 이산화<sup>2</sup> · 정연수<sup>2</sup> · 김지만<sup>2</sup> · 김의혁<sup>2</sup>

### Current Status and Availability of Specialized Maternity Non-Standard Room for Delivering Mothers

Jung Won Yoon, M.D.<sup>1</sup>, Sang Won Han, M.D.<sup>2</sup>, San Hui Lee, M.D.<sup>2</sup>, Yeon Soo Jung, M.D.<sup>2</sup>,  
Ji Man Kim, M.D.<sup>2</sup>, and Eui Hyeok Kim, M.D.<sup>2</sup>

Department of Obstetrics and Gynecology<sup>1</sup>,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Department of Obstetrics and Gynecology<sup>2</sup>,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Ilsan Hospital,  
Goyang, Korea

**Purpose :** Demand of specialized maternity ward is increasing as national income level rises. Howev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limits the number of hospital's non-standard room to less than 50% of total hospital beds. Therefore, this research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utilization rate of non-standard room among the Korean women who recently delivered baby in medical facilities in order to examine the factors affecting their selection.

**Methods :** One hundred sixty six medical facilities which deliver a minimum of ten cases in 2011 were selected and categorized by type, region, and size. A cross-sectional survey was done in November 2012 by a professional research survey company. Eight hundred and two pregnant women answered the questionnaire through a face-to-face interview.

**Results :** Of the 802 expecting mothers, 690 (86%) occupied non-standard room and 684 (85.2%) preferred non-standard room to the standard room. Satisfaction levels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mothers occupying non-standard room [ $5.9 \pm 1.0$  vs.  $5.4 \pm 1.2$  (0-7 scale),  $P < 0.01$ ] and high-income families used non-standard room more often. Reasons for using non-standard room included adequate convalescence (78%), separate place for breastfeeding (6.1%), and convenience on receiving visitors (5.4%). Preference for non-standard room on next visit was higher in case of delivery compared to other cause of hospitalization (81.8% vs. 44.9%,  $P < 0.001$ ).

**Conclusions :** Preference and actual use of non-standard room after delivery were significant. In spite of concrete preference, there was certain barrier in use of non-standard room according to the income and types of hospitals. Therefore, changes of policy such as insurance support for room charge may be needed in case of delivery.

**Key Words :** Patients' rooms, Maternal health service, Availability, Delivery, Postpartum

접수 : 2014년 7월 8일, 수정 : 2014년 9월 10일,  
승인 : 2014년 9월 29일  
주관책임자 : 김의혁, 134-727 경기도 일산동구 백석동 1232번지  
국민 건강 보험공단 일산병원 산부인과학교실  
전화 : (031) 900-0211, 전송 : (031) 900-0138  
E-mail : raksumil0@gmail.com

Copyright© By The Korean Society of Perinatology

미국의 경우 1900년대 초에는 전체 산모의 약 5% 정도만이 병원에서 분만을 하였지만 경제 수준의 향상과 안전 분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병원에서의 분만율이 높아져 1945년에는 70% 이상에서 그리고 최근에는 약 99%의 산모들이 병원에서 분만하고 있다.<sup>1,2</sup>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소득 수준의 향상과 전 국민 건강

보험의 시행으로 인한 의료 이용에 대한 경제적 접근성의 향상, 가족의 구조와 기능의 변화, 그리고 병원의 비약적 증가로 인하여 산모의 지리적 접근이 용이해짐에 따라 병·의원 등의 보건 기관에서 시행되는 병원 분만율이 증가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의료 수준이 높은 서울의 경우에도 병의원 뿐 아니라 조산원까지 포함한 시설 분만율은 13.9%에 불과하였으나, 1982년도에는 전국 시설 분만율이 62.9%로 크게 증가하였고, 2000년 이후에는 조산원을 제외한 병의원 분만만으로도 99%를 넘게 되었다.<sup>3-5</sup> 산모들이 병원분만을 선택하게 되는 이유는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분만 시 조력을 얻을 수 있는 인적, 경험적 자원의 부족과 함께 무균술의 발달, 항생제의 개발, 첨단 의료장비의 발달로 모성 사망률이나 이환율 및 주산기 사망률이 감소되는 효율성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sup>6</sup>

분만이 안전하게 시행되었다면 분만 직후에는 대부분의 경우 특별한 의학적 처치가 요구되지 않고, 신생아의 탄생의 기쁨을 가족 친지 동료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특수성이 있어 출산은 다른 질병에서와는 다르게 1인실이나 특실의 요구량이 많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병원에서 분만 자체의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만이 요구되었으나 최근에는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와 더불어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서, 더 좋은 의료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기관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분만은 질병 분류에서 응급으로 인정이 되어 의료전달체계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의료이용이 타 질병군에 비해 용이하고 산모가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도 있다. 경제성장과 함께 고용기회의 확대 및 만혼의 증가로 고연령 산모의 증가, 모자동실의 일반화와 산후조리원의 등장 등으로 분만 관련 의료이용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2011년 6월 대한산부인과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산부인과 병의원의 병상 가동률은 1인실 65.5%, 2인실 62.7%인데 비해 6인실은 12.2%, 7인실은 23.5%, 8인실은 1.4%에 불과하였다.<sup>7</sup> 같은 해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산모 14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산모의 병실 선호도 역시 84.4%가 1인실을, 2인실 9.4%, 다인실 6.6% 순으로 나타났다.<sup>7</sup>

국민 건강 보험에서는 의료 기관이 기본 입원료 외에 추

가로 입원실 비용을 환자에게 비급여로 부담시킬 수 있는 병상, 즉 상급병상의 비율을 전체 병상의 50%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산부인과학회 및 대한산부인과 의사회에서 현실과의 괴리를 들어 일반 병상의 규정인 총 병상의 50%의 완화를 요구하고 있어 분만 환자의 일반병실 또는 상급병실 선택 이유 및 실제 병상 사용 현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모자보건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분만실태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특정 의료 기관에 방문한 산모에 대한 분석 등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환자의 생활수준, 요양기관 종별, 산과적 위험수준을 고려한 산모의 병실선택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 산모들의 상급병실과 일반병실의 이용 현황에 대해 알아 보고 분만 환자의 병실 선택과 관련된 상황과 인식을 조사하여 산모의 상급병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 대상 및 방법

2011년도 기준으로 분만(O80-O84) 건수가 10건 이상인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요양 기관 종별, 병상수, 지역 등을 고려하여 표본 추출한 뒤 조사일 현재 분만으로 해당 의료 기관에 재원 중인 산모를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하였다.

설문은 2012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 까지 1개월간 실시 하였으며 산부인과 진료 부서나 간호 부서의 양해 아래 전문 교육을 받은 면접원이 모집단을 대표하는 166개 의료 기관에 재원중인 분만 산모 802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일대일 개별 설문을 수행하였다. 모든 산모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하였고 자료의 이용에 대해 동의를 구하였다. 설문 조사의 진행은 국민 건강 보험공단 일산 병원에서 문항을 만들었고 설문 조사 전문 업체 ㈜메트릭스에 조사 용역을 하였다. 소요 예산은 설문 조사 한 건당 25,000원으로 약 2,000만원 정도 소요 되었다. 설문 조사를 받은 산모 중 국민 건강 보험공단의 직원이거나 의료 관계자(의사 및 간호사, 병원의 직원)는 설문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설문내용은 분만환자의 일반적 특성인 산모의 연령, 월

평균가구총소득, 거주지역, 의료비 결제대상, 실손형 민간보험 가입여부를 조사하였다. 분만환자의 산과적 특성으로 임신횟수, 분만형태, 분만 주수, 내원 유형 등을 조사하였으

며, 의료기관 이용특성으로 의료기관 종별을 조사하였다.

분만한 산모를 대상으로 상급병실과 일반병실로 구분하여 환자의 일반적 특성 및 산과적 특성요인에 대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군이 동일한 분포를 따르는 지 확인은 카이제곱 검정을 사용하였고 분만 외 질환 시와 분만 시 병동 이용형태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McNemar 검정을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19.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사용하였다.

## 결 과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 Table 2와 같다. 총 802명의 산모 중 상급병실은 690명(86%), 일반 병실은 112명(14%)이 이용하였다. 연령 분포에서는 모든 연령대에서 상급병실의 이용이 많았다. 각 연령대를 세분하였을 때는 차이가 없었으나 35세를 기준으로 나누면 35세 이상에서 80.3%가 상급병실을 이용하여, 35세 미만 산모에서 상급병실 이용률 87%와 비교하여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게 상급병실을 적게 이용하였다( $P=0.04$ ). 병실 구분을 보면 모자동실에 입원한 산모의 95.8%가 상급병실을 이용하였다. 실손형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I

	Total (n)	Non- standard room n (%)	Standard room n (%)	P- value
Age (years)				
≤24	20	18 (90)	2 (10)	0.112*
25-29	229	200 (87.3)	29 (12.7)	
30-34	406	354 (87.2)	52 (12.8)	
35≤	147	118 (80.3)	29 (19.7)	
Rooming-in				
No	542	441 (81.4)	101 (18.6)	<0.001†
Yes	260	249 (95.8)	11 (4.2)	
Insurance type				
Public medical aid	4	3 (75)	1 (25)	0.453†
Health insurance	798	687 (86.1)	111 (13.9)	
Private medical insurance				
Yes	237	208 (87.8)	29 (12.2)	0.653†
No	565	482 (85.3)	83 (14.7)	
Total	802	690 (86)	112 (14)	

\*Mantel-Haenszel  $\chi^2$  test, † $\chi^2$  test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II

	Total, n	Non-standard room n (%)	Standard room n (%)	P-value
Monthly income (ten thousand won)				<0.001*
<220	153	116 (75.8)	37 (24.2)	
220≤,<300	160	142 (88.8)	18 (11.3)	
300≤,<400	246	220 (89.4)	26 (10.6)	
400≤	243	212 (87.2)	31 (12.8)	
Type of hospital				<0.001†
Clinic	250	237 (94.8)	13 (5.2)	
Hospital	387	345 (89.1)	42 (10.9)	
General hospital	98	72 (73.5)	26 (26.5)	
Specialized general hospital	67	36 (53.7)	31 (46.3)	
Parity				0.074‡
Primipara	479	403 (84.2)	76 (15.9)	
Multipara	323	287 (88.9)	36 (11.1)	
Method of delivery				0.404*
Vaginal	394	336 (85.3)	58 (14.7)	
Elective cesarean	228	202 (88.6)	26 (11.4)	
Emergency cesarean	180	152 (84.4)	28 (15.6)	

\*Mantel-Haenszel  $\chi^2$  test, † $\chi^2$  test for trend, ‡ $\chi^2$  test

**Table 3.** Satisfaction scale for current room according to type of room

	Non-standard room (n=690)	Standard room (n=112)	P-value
Monthly income (Ten thousand won) , mean $\pm$ SD	337 $\pm$ 143	303 $\pm$ 303	0.02*
Satisfaction (0-7 scale), mean $\pm$ SD	5.9 $\pm$ 1.0	5.4 $\pm$ 1.2	<0.001*
Willing to change the room, n (%)	15 (2.2)	9 (8.0)	0.003 <sup>†</sup>

\*t-test, <sup>†</sup> $\chi^2$  test

민간보험과 상급병실 입원과는 관계가 없었다. 월 소득 220만원 미만 가구에서는 75.8%가 상급병실을 이용한 데 비해, 220만원 이상 가구에서는 88.4%가 상급병실을 이용하여, 월 평균 가구 소득이 낮은 가구에서 상급병실 이용이 적었다( $P < 0.001$ ). 그러나 월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 구간 별 상급병실 이용에 차이는 없었다(Table 2).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간에 의미 있게 차이가 있었으며, 그 순서대로 상급병실 이용이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게 높았다( $P < 0.001$ ). 그 밖에 출산 횟수나 분만 방법은 상급병실 이용과 관계가 없었다.

산모들의 산부인과 병실에 대한 만족도는 7점 만점에 중위값 5.85점으로 대체로 높았다[불만족, 1-3점, 23명(2.9%)/보통, 4점, 77명(9.6%)/만족, 5-7점, 702명(87.5%)]. 그러나 상급병실과 일반병실의 재원 형태에 따라 만족도는 차이가 났다. 상급병실의 산모가 소득도 높았고 병실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으며 병실 이동 의향은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게 낮았다(Table 3). 입원 시 병원에서 병실 이용의 구체적인 안내를 잘 받았다고 말한 응답자는 84.5%로 대부분 병원에서 병실 안내를 잘 받았다고 대답하였다. 상급병실을 이용한 이유는 분만 후 충분한 영양을 위해서(78%), 모유 수유를 위해서(6.1%), 방문하는 손님 접대를 위해서(5.4%), 분만은 축하받을 일이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생각에서(5.1%), 해당 의료기관에 비어있는 일반 병실이 없다고 해서(4.3%) 순으로 나타났다(Table 4).

상급병실 사용자 중 빈 일반병실이 있다면 이동하겠느냐는 질문에 있어서는 15명(2.2%)만이 일반 병실로 옮기겠다고 대답하였고, 반면 일반 병실을 이용하고 있던 112명 중에는 9명(8%)이 상급병실로의 이동을 희망하였다. 일반병실을 이용하고 있던 112명의 이용 이유는 추가로 병실비용 부담이 없어서(53.6%), 해당 의료기관의 일반병실 시설이 나쁘지 않아서(31.3%), 해당 의료기관에 비어있는 상급병실이 없다

**Table 4.** Reasons for using non-standard room

	n	Percent	Valid percent
For a sufficient rest	538	67.1	78
For comfortable breastfeeding	42	5.2	6.1
To accommodate many guests	37	4.6	5.4
For a happy and respectful birth	36	4.5	5.2
No standard room available	30	3.7	4.3
For rooming-in	3	0.4	0.4
Others	4	0.4	0.4
Missing values	112	14	
Total	690	86	100

**Table 5.** Preference of room according to the cause of admission

Preferred room at next delivery	Preferred room at next admission except delivery		Total
	Standard room	Non-standard room	
Standard room	137	9	146
Non-standard room	305	351	656
Total	442	360	802

McNemar test,  $P < 0.001$ 

고 해서(15.2%) 순이었다. 다음 분만 시 상급병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산모는 81.8%로 분만 외 질환 시 병실 이용에서는 44.9% 밖에 상급병실을 선택하지 않아, 분만 외 질환 시 일반적으로 일반병실을 선호하는 환자들이 분만 시에는 상급병실을 선호함을 알 수 있다( $P < 0.0001$ , Table 5).

## 고 찰

An과 Park<sup>8</sup>은 상급병실을 선택하게 되는 요인은 분만이 아닌 수술인 경우에 비수술 입원보다, 종합병원보다 의원급인 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그리고 환자가 고소득 고학력인 경우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요인들 중에서 분만환자의 병실선택 행태

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재원중인 산모를 대상으로 설문을 수행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30-34세가 50.6%이고, 24세 이하는 2.5% 이었다. 20-24세 연령대의 출산율 저하와 30-34세 연령대의 출산율 상승은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고용의 증가와 결혼 연령의 상승 때문인 것으로 고려된다. 35세 미만에서 35세 이상에 비해 상급병실 이용이 유의하게 많았는데, 이는 상급병실 선택 원인 설문에서 유의한 경향을 찾을 수는 없었지만, 경험적으로 젊은 부부의 경우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고, 나이가 들면서 금전문제에 있어 현실적이 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초산에 비해 경산이 상급병실 사용이 많았는데, 이는 경산부의 경우 첫째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 상급병실을 이용하여 가족이 함께 지내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상급병실을 더 많이 이용하였는데 이것은 이전 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했다.<sup>9</sup> 이러한 결과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상급병상 비율을 50%로 제한하고 있으며, 병상수를 늘리기 위한 증축을 하는 경우 30%로 제한 하는 반면, 10병상 이하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일반병상 대비 상급병상 비율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 이외에도 종합 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상급병실이용료가 의원급 의료 기관에 비해 일반적으로 더 비싸기 때문일 수 있다. 분만형태에서는 질식분만을 한 산모보다 제왕절개분만을 한 산모가 상급병실을 더 많이 이용하였다. Lane과 Lindquist는 중증도는 의료이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지적하였는데,<sup>10</sup> 질식분만보다 중증도가 높고 추가 처치가 요구되는 제왕 분만의 환자에서 상급병실의 이용률이 높음을 잘 설명해준다.

2007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33,585명의 산모 표본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임신진단부터 분만까지 1인당 평균 총비용은 185만원(산전진찰 70만원+분만시 115만원) 이었고 이 중 임신부가 본인 부담하는 금액은 102만원(산전진찰 56만원+분만시 46만원) 이었다.<sup>11</sup> 고운맘 카드의 한도가 50만원인데, 평균 산전진찰에 든 본인부담금 평균과 비슷한 액수로, 분만 입원시에는 고운맘 카드의 잔액

이 남아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인부담 항목이 큰 입원 비용이, 주관적으로 처음 느끼게 되는 경제적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 할 수 있다. 실제로 같은 연구에서 200명의 임산모에게 설문조사를 했을 때, 출산 시에 지원받기를 가장 원하는 항목이 출산 후 입원비로 141명(70.5%)이 꼽았다.<sup>11</sup> 본 연구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평균 1일 병실 차액이 10만 8천원이었는데, 산모의 평균 재원기간 3-6일을 고려할 시 평균 30만-60만원의 본인부담금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산모들이 일반적으로 상급병실 선호가 높지만, 소득별, 지역별로 실제 의료 이용에 있어서 형평성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Kim 등<sup>9</sup>은 선행 연구에서 실제 의료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도 저소득층일수록 의료서비스 이용 빈도와 대형병원 이용율이 떨어짐을 밝힌 바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상급병실 사용에 있어 의료보호일수록, 가계 소득이 낮을수록 그리고 대형 병원에 입원한 산모에게서 상급병실 이용율이 낮음을 볼 수 있었다. 2000년대 이후 다양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과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소득수준별 보건의료 이용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는 보건의료정책의 주요 해결과제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여성은 빈곤, 장기간 노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더 받으며 임신중독증, 전치태반, 태반조기박리증, 조기양막파수, 조산, 사산, 임신성 당뇨병 등 임신 관련 합병증의 발생 빈도가 높다.<sup>9,12</sup> 이러한 중증도 질환이 있는 경우 상급병실의 가격이 높은 대형 병원의 이용이 필요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저소득층에게 상급병실료의 지원이 필요한 이유가 될 수 있다.

아울러 2013년 7월부터 시행한 국내 모든 의료기관에서 시행되는 제왕절개분만이 포괄수가제로 시행 됨에 따라 병원 비용의 지불 형태가 많이 바뀌었으나, 상급병실료는 종래대로 본인부담분에 속하게 되어, 이에 대한 산모의 인식 및 체감 부담 정도, 소득수준에 따른 상급병실 사용 형태가 점점 더 격차가 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한 후속 연구 역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연구는 분만환자의 병실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상급병실 선택의 관련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



는 다음과 같은 제한 점을 갖는다. 첫째, 분만환자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원인 중, 과거병력,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질병, 음주, 흡연, 건강행위 등을 포함하지 못하였고 분만환자의 사회경제학적 특성인 분만환자 본인의 학력, 남편의 학력, 분만 당시 고용 형태 등을 포함하지 못하였다. 둘째, 대상군이 무작위 표본추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호 산모가 4명밖에 포함되지 않아서 저소득층의 반영이 덜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셋째로 병실 선택에 있어 매우 중요한 모자동실 여부와 가족분만실 여부에 대한 심층적인 설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산모들이 사용하는 모자동실의 95.8%가 상급병실임을 알 수 있었으나 의료기관의 모자동실 및 가족분만실 비율, 산모의 모자동실 및 가족분만실에서의 선호도를 포함하지 못하였다. 실제로 가족분만실은 분만의 전 진행과정에 남편 및 가족이 참여하는 형태로, 가족분만실의 경험이 분만 경험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해 준다고 알려져 있으며<sup>13</sup> 실제 가족분만실에 대한 선호도 및 요구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sup>6</sup> 모자동실 역시 모유수유 및 모-아 애착관계 형성을 위해 장려되면서 점점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기존 연구에서도 산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젊은 초산모일 수록, 종합병원보다 의원급 일수록 모자동실의 이용율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sup>14</sup>

그러나 본 연구의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존의 우편 설문 조사나 분만 후 시간이 경과한 산모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전문 교육을 받은 면접원이 모집단을 대표하는 166개 의료 기관에 실제 분만 직후에 재원 중인 산모 802명을 대상으로 산모의 경제적 의학적 상태가 포함된 구체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일대일 개별 설문을 심층적으로 수행하여 결측값이 비교적 적은 정확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결론적으로 분만 입원은 그 특성상 다른 질병과는 달리 사생활 보호, 충분한 영양의 필요, 모유 수유, 가족공간의 필요성 때문에 상급병실에 대한 선호 및 실제 이용이 높다. 본 조사에서 산모의 대부분 상급병실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전반적으로 병원의 병실 사용에 있어 산모들은 만족하고 있었다. 그리고 일반 다른 질병과는 달리 추후 분만 시에도 80%가 넘는 산모들이 상급병실을 이용하겠다고 대답

하여 상급병실에 대한 일반 산모들의 요구도를 알 수 있었다. 반면 소득수준, 의료기관 종별, 분만형태, 연령에 따라 상급병실 이용에 격차가 생기고 있으므로, 분만에 한해 상급병실료의 국가 지원이 필요하며 아울러 상급병실 비용 완화와 병실료 적정화와 같은 정책적 제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References

- 1) Hamilton BE, Martin JA, Ventura SJ. Births: preliminary data for 2012. Natl Vital Stat Rep 2013;62:1-20.
- 2) Wax JR, Lucas FL, Lamont M, Pinette MG, Cartin A, Blackstone J. Maternal and newborn outcomes in planned home birth vs planned hospital births: a metaanalysis. Am J Obstet Gynecol 2010;203:243.e1-8.
- 3) Shin JC, Kim YC, Hong SB. Changing patterns of child-births in Korea (III). Korean J Obstet Gynecol 1989;32:599-603.
- 4) Cho YM. The Medicalization of Childbirth in Korea (1960-2000). Yosong Kongang 2006;7:29-52.
- 5) Kim SK, Kim YK, Kim HR, Park CS, Shon SK, Choi YJ, et al. The 2012 National Survey on Fertility, Family Health & Welfare in Korea. 2012-54 ed. Seoul: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2:934.
- 6) Kim HS, Choi YS, Chang SB, Jun EM, Chung CW. A study on needs of women in labour to have family participation during the labour process. Korean J Matern Child Health Nurs 1993;3:38-48.
- 7) Yim SH. OB/GYN is 'in labor'- disparity between legal system and reality, Hankookilbo. 2011. p16.
- 8) An BK, Park JY. Determination factors of the upper grade ward use. Korean J Health Promot 2011;17:1-21.
- 9) Kim KH, Hwang RI, Yoon JW, Ryu KJ, Hong SC. A comparative study on the obstetric services utilization by income classes among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Beneficiaries. Korean J Obstet Gynecol 2012;55:804-13.
- 10) Lane PM, Lindquist JD. Hospital choice: a summary of the key empirical and hypothetical findings of the 1980s. J Health Care Mark 1988;8:5-20.
- 11) Kim KH, Kang Io, Lee JS, Hwang RI, Kim JH, Choi GH. Pregnancy/Delivery related behavior and cost analysis, Seoul: National health insurance cooperation; 2007:29ed
- 12) Heaman MI, Green CG, Newburn-Cook CV, Elliott LJ, Helewa ME. Social inequalities in use of prenatal care in Manitoba. J Obstet Gynaecol Can 2007;29:806-16.

- 13) Jang MJ, Park KS. Effect of Family- Participated Delivery in a Labor Delivery Room on the Childbirth of Primiparas. Korean J Women Health Nurs 2002;8:371-9.
- 14) Kim Y, Kim E-Y. Maternal and Hospital Factors Impacting the Utilization of Rooming-in Care in South Korea: Secondary Analysis of National Health Data. J Korean Acad Nurs 2011;41:593-602.

## = 국 문 초 록 =

**목적** : 최근 저출산, 국민 소득 수준 향상 등에 따라 산모들이 분만 후 처치와 모유 수유 등을 위해 전용 공간인 상급병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의료기관이 상급병실 비율을 전체 병상의 50% 미만으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분만 환자의 일반 병실 또는 상급병실 선택 이유를 파악하고 실제 병상 사용 현황을 검토하여, 병상 이용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정책적 방안을 모색한다. .

**방법** : 2011년도 기준으로 분만 건수가 10건 이상인 요양 기관 대상으로 요양 기관 종별, 병상 수, 지역을 고려, 166개 의료기관을 표본 추출한 뒤, 2012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 까지 설문 조사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802명의 산모를 대상으로 1:1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대상자들의 병실이용 현황과 병실 선택과 관련된 상황과 인식,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결과** : 총 802명의 산모 중 상급병실 이용자/선호자는 각각 690명(86%)/684명(85.2%), 일반 병실은 112명(14%)/118명(14.8%) 이었다. 35세 미만의 산모에서 상급병실을 더 많이 이용하였다(87.3% vs. 80.3%,  $P=0.026$ ). 의료기관 종별 유형은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순서로 산모들의 상급병실 이용이 많았다. 제왕절개 여부, 다태아 여부, 경산 여부는 상급병실의 이용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병실의 만족도는 상급병실이 일반병실 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5.9 \pm 1.0$  vs.  $5.4 \pm 1.2$  (0-7 scale),  $P<0.01$ ), 가구 총 소득 역시 상급병실 이용자에서 높았다. 상급병실 이용 이유는 분만 후 충분한 요양 (78%), 모유 수유(6.1%), 방문 가족 접객(5.4%) 등이었다. 추후 병원 이용 시 상급병실 선호도는, 분만의 경우가 분만 외 질환 시 보다 높았다(81.8% vs. 44.9%,  $P<0.001$ ).

**결론** : 분만 입원의 특성상 사생활 보호, 충분한 요양의 필요, 모유 수유, 가족공간의 필요성 때문에 상급병실에 대한 선호 및 실제 이용이 높다. 반면 소득수준, 보험가입여부, 연령에 따라 상급병실 이용에 격차가 생기고 있으므로, 분만에 한해 상급병실료의 국가 지원이 필요하며 아울러서 상급병실 비율 완화와 병실료 적정화와 같은 정책적 제언이 필요할 것이다.

---

**중심 단어** : 병실, 모성보건, 접근성, 분만, 출산 후